

# ‘트럼프 수혜’ 로봇株, 적자에도 평균주가 98.42% 급등

(연초 대비)

트럼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목’ 美 제조기업 자동화기기 도입 가속화

레인보우로보틱스, 6거래일 상승밸리 클로봇, 하루 만에 주가 15.97% 올라 재무상태는 ‘적자’... 투자 시 유의

연초 국내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률이 가파르다. 레인보우로보틱스, 클로봇, 하이젠알앤엠 등 로봇 관련주의 평균 주가는 연초 대비 98.42% 급등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로봇 산업 발전에 유리한 쪽으로 잡히고 있어 로봇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 7일 6거래일 연속 상승밸리를 기록하며 41만500원(+9.61%)에 장을 마쳤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 이 가장 많이 순매수(약 735억4666만원)한 코스닥



레인보우로보틱스 협동 로봇 RB 시리즈 제품 라인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시가총액은 7조 4000억원까지 상승해 코스닥 상장사 중 5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 로봇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다.

로봇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내 제조 기업이 자동화 기기

도입을 가속화하면서 로봇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이에 지난해 10만원대에 담보 상태로 머물러 있던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삼성전자의 자회사 편입 결정 이후 지난달 30만원선을 넘어서더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40만원대로 올라섰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0 시대에는 전 세계적인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및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리쇼어링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로봇 도입이 점차 가속화되는 추세가 될 것”이라며 “사람 형태를 모방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물건 운반과 정리·위험물 처리·구조 활동 등 일반 로봇에 비해 쓰임새와 잠재력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해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술을 물리적으로 구현할 플랫폼인 로봇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신 로봇 연구진이 2017년 설립한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 클로봇은 지난 7일 하루 만에 15.97% 상승(증가 19만100원)하며 2만원선 안착을 노리고 있다. 클로봇 역시 지난해 12월초 5000원대에 가격이 형성됐던 기업으로 연초에 주가 상승세가 가파른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업체 하이젠알앤엠은 연초 대비 199.63% 상승하며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다만 해당기업들의 재무상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투자 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1%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하이젠알앤엠도 같은 기간 매출액은 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한 상태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휴머노이드 등 기술 기대감은 높아지나, 상용화해 판매되고 있는 로봇 등은 전방 수요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기대와 현실 간 괴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재 상용화된 로봇의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딥시크·오픈 AI 제휴 기대감... 5거래일간 26.71% ‘쑥’

### metro 관심종목

#### 카카오

저비용인공지능(AI) 모델인 ‘딥시크(DeepSeek)’의 등장과 오픈AI와의 제휴 기대감으로 카카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카카오그룹 전반에 투심이 물리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의 주가는 1월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5거래일 만에 26.71% 올랐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방한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다. 카카오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다만 7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1.77% 떨어지며 상승 피로감으로 인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은 카카오를 1744억원 순매수했으나, 지난주(2월 3~7일)에는 418억원을 순매도했다. 카카오는 지난 2022년 이후 주가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개미무덤’으로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AGI 목표로 양사 포괄적 개발 가능성 기업가치에 탄력적 상승여력 부여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에도 영향

불렸던 만큼 반등 국면에 빠져나간 신호로 보여진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의 주가는 2022년 3월보다 63.61% 떨어진 상태였다.

카카오의 주가 기대감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진구 키움증

권 연구원은 “카카오와 오픈 AI의 제휴는 빅테크 바게닝 파워가 주요 이해관계자 대비 줄어들면서 관련 에코시스템 내에서 기업간거래(B2B)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를 포괄하는 사용자 데이터 기반 업체를 포섭하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발현된 결과”라며 “향후 인공지능(AI)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에 구동경제 기반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서비스 개발에 양사가 포괄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제휴 수준은 이용자 데이터 기반 협력이나 지분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규법인 설립 등이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성사된다면 카카오 기업가치에 탄력적인 상승 여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키움증권은 이를 반영, 목표주가를 기존 4만 5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오픈AI와의 제휴 효과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주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8.49%, 카카오페이는 18.70%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그룹과 오픈AI의 동맹이 당장 카카오뱅크에 영향은 없겠지만, 카카오뱅크가 자체 추진 중인 자연어 기반 금융 계산기 등 AI네이티브뱅크 전환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실적 성장세도 주목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31.3% 상승한 2182억원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 금감원 영문 DART 개편 추진 外人 투자자 접근성 ↑

금융감독원이 외국인투자자들이 법정공시 주요항목을 영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 전자공시시스템(DART) 개편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공시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장하고, 검색 기능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활용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9일 단계적 다트 영문공시 확대 방안 2단계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 3년간 외국인투자자의 영문 다트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이번 영문 콘텐츠 확대 및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신규 제공으로 영문 다트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문 다트 접속 건수는 지난 2022년 1만589건에서 2023년 3만9079건, 지난해 7만887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영문 다트 공시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해 영문 조회 기능도 최적화한다. 기존에는 회사명뿐만 아니라 검색어 등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영문 보고서명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제시된 보고서명을 선택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빠른 선택 기능’도 신설된다.

영문 공시 관련 공모 정보 제공 방식도 한층 개선된다. 공모계시판을 통해 지분·채무·과생결합증권 등의 청약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하며, 발행회사 및 청약일 등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월별 청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청약 달력’ 기능과 주식·채권 관련 모집·매출 실적 정보도 영문화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영문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신설해 주요 공시정보 83종을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를 활용해 공시 원문(XML, JSON)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 금감원, ETF 허위·과장 광고 시정조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강조 ‘지적’

금융감독원이 일부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광고들은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9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10곳이 집행한 252건의 ETF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미실현 수익률을 강조하거나 투자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부적절 사례는 ▲예상·목표 수익률을 실제 수익률처럼 강조한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표현을 기재한 경우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정보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특히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하지만 분배금은 ETF의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이자를 기반으로

지급되며, 지급된 분배금만큼 순자산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한 바 있다. 또한 향후 정기적으로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성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조사2팀 국장은 “ETF 상품 투자 시 특정 기간의 성과만을 보고 투자 여부

를 결정하지 말고, 최소 1년 이상의 수익률과 상품의 변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저’, ‘최초’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대해 “기준일과 비교범위에 따라 해당 표현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TF 상품은 코스피, 코스닥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ETF라도 수수료에 따라 장기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최 국장은 “ETF 투자 시 수익률뿐만 아니라 운용보수, 기타비용 등 수수료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